

뜨거운 인민사랑이 펼친 희한한 온실바다

평양 남새파학연구소에 깃든 불멸의 자욱을 더듬어

우리는 얼마전 절세위인들의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 평양 남새파학연구소를 찾았다.

드넓은 부지에 온실바다를 펼친 연구소의 모습은 참으로莊觀이었다.

걸불언이라고 모든 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조종되는 현대적인 성장온실들과 박막온실들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남새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최한 풍경인가.

행복의 빌딩이 바로 여기 현대적인 남새연구 및 생산기지에서도 소리치며 바중오는 것만 같아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연금과 남새!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누가 예전금을 들여서 남새를 생산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인민이 비판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 유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일파선 평양남새파학연구소는 이에 대한 가슴뜨거운 대답을 주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꿈을 들어 마련해주시는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단단히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내우야 합니다.』

후에 우는 마음을 암고 우리는 연구소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도로 놓이게 있다.

로시비의 글밭을 한자화자 새겨보는 우리에게 김상률호금당위원장은 외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온정속에 연구소는 첨단생물공학연구센터를 갖춘 최신식 남새기지로 힘차게 활동하고 있다.

주 101(2012)년 9월 능력 확장된 평양남새파학연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에 모시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버이장군님과 함께 이곳을 찾으시었던 한재경 3월의 웃음을 그늘을 감회 깊이 추억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난 사람으로 가슴풀이 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만난 경지로 결집될 수 있는 구상을 고려하였다.

천수님께서는 평양남새파학연구소의 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율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는 장군님의 도고가 드겁게 어려웠다

고 절실히 말씀하였다.

순간 그들이 우러르는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기술마다에 세사계고 고마움을 무엇이었던가.

이 방에 임인의 행복을 꽂미우시며 만족의 씨앗들을 뿌려 주신 어버이장군님

에 대한 더침없는 그리움이었다.

모든 것이 무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는 암송하고 영양가높은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시려는 숭고한 열망이 끊어지지 않았다.

절세위인의 뜻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남새파학연구소는 작물들에 품과 뿐으로, 음식과 보양 등 모든 작용성을 끌어내려고 힘써주길 수밖에 없었다.

평양남새파학연구소를 풀어놓은 대로

여기에서 개진될 수 있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꿈을 들어 마련해주시는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단단히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내우야 합니다.』

후에 우는 마음을 암고 우리는 연구소에 모셔진 원수님의 현지도도로 놓이게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혹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으로 놓이게 되었다.

사회주의 청춘 대지에 새겨진 개척자들의 빛나는 위훈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장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평생 휘황한 실제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는 적동의 시기에 세포전역에서 대자연개조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 올랐다.

당의 용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포 등반개간전투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인 전설자들이 922km 축산물대원들은 자연의 광활한 부락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뚫고나가며 세계급지의 대규모 축산기지를 불과 5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세로, 평강, 이천군을 포함하는 드넓은 등반개간되어 5만여평보의 대초원이 노루리 아득히 펼쳐지고 수백정보의 바람막이 숲과 1만 2,600여평보의 풀판보호막, 2,000여km의 방목도로와 360여km의 배수로, 저류지들이 형성되었다.

수천동의 살림집과 칠성승우리, 공공건물, 수의방역시설물, 축산물가공기지 등의 건축물들이 일제히 풍랑진으로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각지 인민들이 주제 101(2012)년 12월 개간의 첫삽을 박았다.

당의 무릅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강원땅으로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각지 인민들이 2013(2012)년 12월 개간의 첫삽을 박았다.

세포방의 천지개벽은 나라이의 축산율을

대체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충실히 달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모전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당정책옹위전을 과감히 펼쳐 이룩한 조국역사에 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은 경험에 없고 부족한것이 많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두정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포전역에서 사람들을 경란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한정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뜻을 담드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 대자연개조의 첫 포

성을 세포방에 올려주시고 철당, 철군, 철민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전투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분후의 고전적작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어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리정포를 마련해 주시고 수많은 혁명기제와 실비들도 보내주시며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혁명한 봉도는 세포지구의 천지개벽을 안아온 기적과 혁신창조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남들은 수십년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땅 대원 축산기지건설을 단 몇해안에 해제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열의 속에 세포등반개간전투의 불길이 거세하게 타올랐다.

당의 무릅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강원땅으로 달려간 인민군군인들과 각지 인민들이 주제 101(2012)년 12월 개간의 첫삽을 박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죽임을 헤아리지 말자』라는 노래들이 토지개척전을 힘 있게 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정력적인 봉도는 개척자들에

강계정신창조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고무추동한 투쟁의 노래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강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련을 위한 충진군을 다지고 있는 강계정신창조자들의 혁명열을 빼내주며 공훈국가합창단·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 무용종합공연이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강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자강평을 전감시킨 로동당찬가, 최후승리의 전진가들은 혁명의 춤연한 대에 사회주의수호정신인 강계정신을 창조하면서 그 기쁨으로 일련만심당을 따라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해 비약해나가는 자강도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강계시, 안포시, 회천시, 증강군, 우시군, 초산군, 항원군 등 도안의 곳곳에서 온 수

많은 군중들로 공연장소는 편밀 초만원을 이루었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자우이 뜨겁게 아름새져있는 영광의 일터마다에서 창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는 주요공연, 기호소, 협동동창의 토목혁신자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군들과 각계층 군로자들, 청년학

드리는 노래, 경음악과 노래연곡 『당이 그대 있기에』와 사회주의 승리봉을 함께 친하게 전진하는 양봉의 기상으로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남성동창과 남성합창 『나 가지 조선아 명진 앞으로』, 경음악 『단송에』, 남성중창 『인생의 영광』, 가무 『보반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대제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약동하는 세대정신이 떠나는 공연은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활활히 털어놓으며 온 자강땅을 열정의 도가니로 끌어번지게 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정을

담은 남성동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온악무용종합공연 강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

가고갈 자강도민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너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잊지 않으리』와 설화시 『자강도여 영진히 잊지 말자!』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절세위인들에 대한 시무치는 그리움으로 젖어들게 하였다.

점엄했던 고난의 강행군을 전두에서

이끄시며 자강도민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력의 불꽃을 강제정신의 거세한 불길로 지펴주시고 사회주의 강국의 반성을 풀면서 젖어들게 하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조국이 제일 어려운 때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준 사람이라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 믿음을 실정

마다에 간직하고 살며 일하는 강계와 회

천의 뜨겁게 금, 구봉령의 가족소년들,

전천과 만포의 러역혁신자들, 강강의 세

벌능사선구자들을 비롯한 관람자들 모두

가 잊지 못할 역사의 날들을 걱정 속에 들

이켜보며 충정의 행세를 다지고 또 다시

쳤어들게 하였다.

점엄했던 고난의 강행군을 전두에서

이끄시며 자강도민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력의 불꽃을 강제정신의 거세한 불길로

지펴주시고 사회주의 강국의 반성을 풀면서 젖어들게 하였다.

자강도사람들은 조국이 제일 어려운 때

자신에게 제일 큰 힘을 준 사람이라고

깊이 형상화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힘을

발휘했다.

단종양의 민족유雍원을 영원한 명품으로 삼고 박원의 걸

을 업어가던 그 기세, 그 본래

대 좋은 일남을 장조해가는 자강도민들의 힘과 풍자와

행망이 한껏 펼쳐나온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

랑도일세』, 『창황산하명』 등 노래들은 장내

우리 당파 생사운명을 같이 할 순경하고

강직한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을 강령

깊이 형상화함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힘을

발휘했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업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통령, 두정봉

때로 도를 사회주의 강경진실의 돌파구를

향려운 손간으로 둘씩

하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p

우리는 자주의 가치높이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한 공화국의 일정 대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퍼를 물고 날뛰는 미제외의 최후결사전,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만리마속도 창조적 전진을 벌리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 정신은 우리 천만민의 혁명령, 투쟁령, 훈령의 신념을 배여주고 있다.

전 원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에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분석령加以하고자 했던 가치, 자력갱생의 가치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적들의 무모한 행진도발등과 비판한 체제암살작동을 단호히 부정부乖로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멸의 위력을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끌어내기고 있다면》입니다.

자주는 주체조선의 혁명방식이며 최후승리를 향해 풀진하는 조선인민의 불변의 혁명신조이다.

자주에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와 시대발전의 합법적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주체사상을 혁명실천에 및나게 구현하여 전진미답의 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사회주의 조선의 역사와 전통이 비껴있다.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정신은 서대와 외세의 윤으로 막국의 치유이 서리었던 이 망우에 어떻게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조선이 일어섰으며 세계적인 정치적동반과 세계주의의 악랄한 군사정책적암살작동에도 끄적이는 사회주의성세가 우뚝 솟아올랐는가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항일 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혁방의 혁신적위업을 더욱 확장으로써 그것을 실천으로 확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령으로 자주를 생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결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권리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자주의 원칙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새 국주의 반동들을

자체의 자들의 반혁명적공세와 간

핵폭동을 풀어마다 짓부시고 두차례의 혁명령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어려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력사

만을 창조할 수 있었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동으로 대처한

세상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

도 있으며 발전된 나라도 있고 멀

진된 나라도 있다. 그러나 높은 나라와 지시하는 나라도 있고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나라와 민족

들의 국제적위업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원동력으로서는 끊임없이

우리 혁명의 원동력으로서는 끊임없이